

셋째,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본문 20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참된 안식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 령)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 문 다 같 이

2021 설 명절 가정예배

예배 지침

- ① 가족중 대표가 사회를 담당합니다.
- ②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 ③ 예배 후 자녀는 부모에게 세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 ④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날 기뻐던 일, 어려웠던 일들을 서로 위로해 주며, 좋은 일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70장 다 같 이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자 이리오라 /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장네
2.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 우리 주 목소리 한번만 발하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3.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4.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 괴롭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 도 가 족 중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일러 두신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며, 세워주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눔이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모는 존경받고 본이 되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자녀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 멘-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18:18~20 다 갈 이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설 교 "3가지 감사" 다 갈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만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은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3가지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다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크게 낙심하며 술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19절의 중요한 핵심은 ‘합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마음이 나누어지면 약해집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이 이해와 용서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기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